

생태 · 평화 ·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새로운 21세기 해양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다른 국제자유도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을 지주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자유도시이다.

제주 지역의 산업경제

탐라문화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의 중심이고, 동북아의 거점도시이자 대양을 향해 뻗어 나가는 한반도의 출발지로, 풍부한 목야와 농경지로 많이 개간되고 있으며, 서부산업도로의 개통으로 급격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도시이다.

제주를 특화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을 마케팅 중심의 구조개선으로 지역브랜드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중소벤처 창업지원 및 청년실업 등의 고용창출 유도 등 특화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서 21세기 미래 사회로 거듭나고 있다.

산업구조는 감귤 재배 등 1차산업이 16.7%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각각 3.7%와 79.6%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3차 산업 중 서비스업이 44%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은 4%, 건설업은 1.5%이며 통신업이 12%로 제주시에서 국내·외 적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의지와 결부됨을 보여준다.

근로자는 전체 107,607명 중 13%가 서비스업 종사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무업 종사자가 1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도시로 국내·외 관광객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노력이 요구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의 SafeCommunity 인증 획득이 그 중 하나이다. 이로써 제주도는 세계인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정수장 및 배수로 시설의 공급 확충과 노후 배수관 및 누수방지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역의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한국공항(주) 제주지점 고정범 안전관리자》

지역 안전기행

항공기 지상 조업업체로 항공기의 착륙에서부터 이륙할 때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업체인 한국공항(주)제주지점에서 고정범 안전관리자를 찾았다.

업무가 다양하고 출근시간도 각 조별로 다르다 보니, 이에 따른 위험요소도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무재해 5배를 달성하고 2005년도 2월에 무재해 6배를 앞두고 있다.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정범 안전관리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무재해 10배를 지나 무재해의 끈을 계속 이어간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안전은 돈이다”라고 말하는 고정범 안전관리자는 한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도 순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를 잃을 수 있다며, 안전은 곧 돈이라고 얘기한다.

또한 안전은 책상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안전이다.

이곳에는 평균 10개조가 출근을 하는데 각기 출근시간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출근조를 맞아 그날에 안전 포인트를 전달하고 안전한 작업을 독려한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금까지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데에는 임원에서부터 실시하는 지적확인 1일 1성 운동이 있었다고 소개한다.

지적확인은 임원이 술선수범으로 이미 한국공항(주) 모든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운동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지적확인을 할만큼 자리잡은 운동이기도 하다.

지적확인 1일 1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1일 1성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운동이다. 하루에 1가지 이상을 반성하고, 이를 기록하는 운동으로 아차사고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반성하고 기록된 내용은 안전교육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이를 작성한 동료 직원이 강사가 되어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처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이곳의 안전을 꾸려나가는 고정범 안전관리자는 올해가 안전업무를 시작한지 8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그 동안 우리 산업사회의 안전은 많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이곳 한국공항(주)의 안전도 많이 발전하였다. 강압적이거나 수직 하달식의 지시가 아닌 직원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직장풍토로 자리잡힌 것이다. 그래서인지 고정범 안전관리자는 자신이 안전관리자라는 사실을 가끔 망각한다며 얼굴 가득 미소를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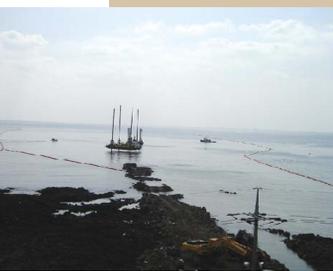
제주지역 안전인 동호회에서 제주지역 안전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고정범 안전관리자는 이 모임에서 정보를 얻고 친목도 다지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



▲ 고정범 안전관리자



지역 안전기행



이다.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이런 마음이 한국공항(주)에서도 동료 직원 입장에서의 안전활동으로 전개하여 왔다.

앞으로 더 나은 안전활동으로 동료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고정범 안전관리자는 그동안 벤치마킹을 통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법을 하나 하나 끌어내어 직장 동료 앞에 펼쳐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한국공항(주)에 주목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주)대저토건 문일성 안전과장》

지역 건설회사인 (주)대저토건은 지난해 150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조용히 실속을 갖춰가고 있는 건설한 기업이다. 이곳에서 제주도 동부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현장의 문일성 안전과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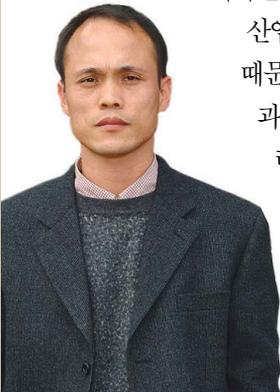
하수관 50km와 중간 펌프장 23개, 수심 40m에서 해양방류관 1200m을 시공하고 있는 이곳 현장은 공사구간이 방대하고, 위험요소도 다양하다. 특히, 해양방류관 공사는 특수공사로 잠수를 통해 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 그 위험성은 엄청나다.

이러한 위험속에서도 문일성 안전과장은 무재해 준공을 꿈꾸며, 오늘도 현장을 누빈다. 현장 근로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100% 들어주는 문일성 안전과장은 보호구와 관련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지켜줄 최후의 수단인 보호구는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착용하고픈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보호구가 더럽고 비위생적인 것에 대해서는 100% 교환·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곳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내역 중 보호구와 관련한 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간접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문일성 안전과장의 소신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의 이익인 것처럼 인식하여, 투자를 꺼리는 풍토가 남아있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현장에서의 무재해는 현장 근로자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문일성 안전과장의 믿음과 소신은 그들과 신뢰를 쌓기에 충분하다.

처음 사회에 발을 내 디뎠을 때에는 안전업무를 한 것은

▲ 문일성 안전과장

아니었지만, 평소 안전과 관련하여 몸에서 우러 나온 행동이 오늘 안전업무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문일성 안전과장은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회사는 공적인 조직이라, 여러분이 다치면, 그 순간 해당 조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시간 속에 묻혀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그대로 당사자인 여러분의 가정에 남아 평생을 힘들게 합니다. 다치면 나만 손해인 것이지요”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장 근로자가 자기 스스로 안전을 지켜가야 할 이유이고 의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건설현장에 대한 관의 지도 점검에 대해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

안전업무를 시작하면서 법과 현실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문일성 안전과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건기법”과 “산안법”이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 지식 부족으로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건기법 관련한 지도 점검이 그런데, 관의 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재난관리시스템

제주도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강화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수해 상습지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주시 독사천지구, 서귀포시 천지연 및 정방폭포지구, 북제주군 신촌지구, 남제주군 고수천 및 가시천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의 절충등을 통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해나갈 것이며, 이로 인한 안전도시로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다. 

〈최종덕 기자〉

